

Richard Florida의 창조 도시 이론의 한국적 수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창조 계층의 장소 선택을 중심으로

김준홍

성균관대학교 도시발전연구소

[국문초록]

미국의 경제지리학자 Richard Florida에 따르면, 창조적인 사람들이 도시 및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이들 창조 계층은 관용적 분위기로 특징지어지는 장소에 매료되어 거주하게 된다. 본 연구는 한국 창조 계층의 장소 선호 및 선택에 관련하여 Florida의 논제를 비평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 문화 정책의 맥락에서 한국의 창조 계층이 도시의 관용적 분위기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에서 창조적인 사람들을 특정 장소로 유입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실행하는 문화 정책 접근을 신중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관용과 다양성의 장소를 조성하는 소위 창조 도시 전략은 한국의 도시 문화 정책을 위해서 그 타당성을 향후 더욱 엄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창조 도시, 창조 계층, 창조성, 관용, 장소 선택, 문화 정책]

투고일: 2011.11.03

심사일: 2011.11.29

게재 확정일: 2012.01.05

I. 들어가는 말

Richard Florida가 대중화시킨 창조 계층(creative class)이라는 용어는 창조적 성과에 대해 보상을 받는, 전 세계 노동자의 약 3분의 1을 가리킨다. Florida(2002a, 2002b, 2005, 2007)는 창조적인 사람들이 도시 및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하였다. 창조 계층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는 미국을 넘어 국제적 수준에서 많은 학자·정치인·도시정책실무가, 그리고 여러 민간 부문의 실천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Florida의 아이디어와 주장이 특별한 점은 창조적인 사람들, 곧 창조 계층의 거주 및 활동장소가 여러 도시와 지역에 걸쳐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Florida(2002a, 2002b, 2005, 2007)에 따르면, 창조 계층은 도시의 관용적 분위기(urban climate of tolerance)가 충분한 장소에 매력을 느끼며, 그러한 장소를 선택하여 거주하게 된다. 관용적 분위기는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조세감면 등 기업에게 유리한 경제적 환경(business climate)이라기보다 인적 환경(people's climate)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데, 창조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관용적 도시 환경을 찾아 함께 모여 정주하며, 그들의 창조적 직업 활동과 창조적 상호작용의 결과 그 도시·지역의 혁신적 기업 활동, 문화산업의 육성, 경제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 창조적 개인들의 존재는 그 장소를 창조적 공간(local creativity)으로 바꾸며, 지역 혁신과 문화산업의 발전이라는 형태로 지역 경제 발전과 성장을 추동하게 된다는 것이다(Lopes, Da Palma, & e Cunha, 2011). 도시의 문화산업의 육성과 경제 성장은 이들 창조 계층을 따라가는 것일 뿐, 창조 계층이 도시의 문화산업의 육성과 경제 성장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Florida의 주장의 핵심이다.¹⁾

Florida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미국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예컨대 문화 및 첨단산업이 발달한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과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서 창조 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동성애자나 보헤미안이 많이 정주함으로써 다양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분위기의 인적 환경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Florida, 2002a). 보헤미안이란 문화예술 관련 직업 종사자다. 보헤미안은 문화적·예술적으로 창조적이고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정의된다(Florida, 2002a, 2002b, 2003, 2005).

1) 미국의 여류 작가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가 Florida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Jacobs(1961, 1969, 1984)에 따르면, 위대한 도시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수용하는 관용적 분위기를 갖추고 있으며, 관용적 분위기는 창조적 인재들의 에너지·창조성·아이디어를 도시 혁신 및 성장으로 연결시킨다.

다면적 여러 요인 중에서도, 특히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의 관용적 분위기가 창조 계층을 매료시켜 정주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Florida의 설명에 대해 비판하면서 다른 요인들이 창조 계층의 이동성(mobility)에 영향을 준다는 논의(Binnie & Skeggs, 2004; Borjas, 1994; Markusen, 2006; Peck, 2005)가 꾸준히 있어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도시와 지역의 성장을 위하여 창조 계층의 창조성이 그 추동력이 되고 있으며, 그들의 창조성은 도시와 지역의 관용적 분위기를 진작시키는 문화예술 정책에 의해 유도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Florida의 주장은 국제적 수준에서 광범위한 지지자들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강한 편이다.

국내에서 창조 도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 전부터 문화 도시 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온 도시들이 이후 창조 도시 이론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2002년 국가적 차원에서 광주 문화 도시 조성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추진되다가, 2010년 이후 창조 도시 이론이 새롭게 부상하면서 문화 도시와 창조 도시의 양 담론 간 관계를 조화롭게 정립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김기곤, 2011). 광주 문화 도시 사업의 핵심을 구성하는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문화와 교육을 결합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의 창조성을 계발하게 하는 소위 에듀 컬처(Edu-Culture) 사업을 중요시하고 있어, 사실상 문화 도시는 창조 도시의 틀 안에서 혹은 창조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창조산업의 범위를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임형섭, 2010).

그 외에도 국내의 많은 도시에서 Florida가 주장한 창조 도시의 이론과 전략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문화 도시 비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동시에 요구받게 되었다(이병훈, 2008; Hall, 1998). 이제 ‘문화 창조 도시’라는 말도 통용되고 있다(이영범, 2005).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는 문화 도시를 전제로 하는 창조 도시 원년을 선포한 바 있다. 대전광역시는 창조 도시를 미래의 도시 전략으로 설정하고 창조적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고품격 문화 향수가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정선기, 2010).

그렇다면 우리나라 문화 정책의 맥락에서 Florida의 창조 도시 이론은 얼마나 타당성·적실성이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최근 지속적인 도시 및 지역 혁신 정책과 통합된 문화 정책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창조 도시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졌고, 주요 도시들도 실무에 있어 창조 도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창조 도시 전략의 효과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한상진, 2008). 이처럼 그 효과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창조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 도시 전략 및 목표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향도 있다.

Florida의 주장을 따라, 창조 계층을 자연스럽게 유치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성과 개방성 및 관용의 인적이고 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견지하는 반면, 하드웨어 및 사업 예산 지원에 한정하는 정부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측면도 부정하기 어렵다. 이것은 아직 창조 도시를 위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할 수 있다. 어찌되었든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의 상대적 중요성이나 우선순위가 평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방향이 혼재되어 있다(김선미, 2010; 이무용, 2010).

설령 Florida의 이론을 따라, 창조 계층을 자연스럽게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의 다양성과 개방성 및 관용의 인적이고 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견지한다는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확보했다 해도, 아직까지는 한국의 도시 정책에서 이 목표를 우선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게 하는 정책의 토대와 근거는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문화 도시 전략과도 상당 부분 연계되어 있는 창조 도시의 전략 개발이 왜 중요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얻는 편익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재고가 요구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적 맥락에서 창조 도시 이론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김경아, 2009). 본 연구 논문은 이를 위한 학문적 시도이며, 특히 우리나라 창조 계층의 장소 선호체계/선택과 관련하여 이들이 도시의 관용적 분위기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도시의 관용적 분위기를 증진하는 문화 예술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II. 창조 도시 및 창조 계층 이론과 국내외 비판

1. 창조 도시 및 창조 계층 이론

창조성(creativity) 개념은 도시들이 경제 발전을 추구해나가고, 이를 위해 관련 정책, 대표적으로 문화 예술 정책을 형성하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 개념이다(Acs & Megyesi, 2009; Lopes, Da Palma, & e Cunha, 2011). Florida는 인류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창조성을 경제적 부가가치로 전환시키는 창조 계층을 지역의 문화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함으로써(Florida, 2002a, 2002b, 2005, 2007) 창조성을 사회과학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Lorenz & Lundvall, 2010)를 받는다. 그가 말한 창조 계층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으며 산

2) Florida가 정의한 창조 계층은 직업 활동에 기초한 경제적 개념이다(Lorenz & Lundvall, 2011: 271). 창조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창조성과 재능을 개발·표현하기 위하여 창조적 직업에 종사한다.

업 분야를 막론하고 창조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이다.³⁾ 특정 도시나 지역에서 창조 계층이 모여 사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도시의 경제 발전, 문화산업 육성 등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창조 계층이야말로 더 많은 혁신을 가져오고, 더 높은 수준의 기업이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창조적 산업을 유발해 내기 때문이다(Florida, 2005).

Florida(2003)는 미국 전체 직업 종사자의 약 30%인 3,830만 명이 창조 계층이며, 이러한 창조 계층은 도시 혁신 및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새로운 것을 산출하는 능력으로 보통 개념화되는 창조성은 엄밀한 정의가 쉽지 않다(Torrance, 1988). 창조성은 개인의 역량(ability)이나 성취(achievement)의 시각에서 정의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개인의 성향(disposition)이나 태도(attitude) 측면에서 정의되기도 한다(Norlander, Erixon, & Archer, 2000).

Florida에 따르면, 지역의 발전은 (특정의) 하이테크 산업에 토대를 두기보다는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은) 창조적인 사람들의 직업 활동에 토대를 두고 있다. 창조적인 개인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주목함으로써 Florida의 이론은 기존 지역경제학(regional economics) 혹은 경제지리학(economic geography)과 관심 주제 분야 면에서 구분된다. 특히 Florida의 이론은 지역의 전문화(regional specialization)와 지역의 다양성(regional diversity)에 주목하는 경제지리학과 차별화된다. 이러한 기존 이론은 산업들 간 혹은 기업들 간 지식의 외부 효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Florida에 따르면, 창조적 개인들은 특정 도시·지역에서 지식을 넘쳐나게(knowledge spillover) 함으로써 인적 자본의 외부 효과를 확대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Stolarick & Florida, 2006)고 한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기술과 인적 자본(Steven and Lyons, 2003)⁴⁾이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으나, 창조 도시·계층 이론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3T, 즉 기술(technology)·인재(talent)·관용(tolerance)이 모두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관용적인 도시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Florida, 2005). Florida와 동료의 시각에서 보면(Florida & Gates, 2001), 성·인종·능력·직업 등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포용력,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가진

3) 창조 계층은 창조의 핵심(creative core)과 창조적 전문가(creative professionals) 두 집단으로 구분된다. 창조의 핵심은 컴퓨터와 수학 관련 직업, 건축 및 공학(엔지니어링), 생명과학·물리학·사회과학·교육·사서·미술·디자인·연예오락·스포츠·미디어 분야에 종사하는 집단을 가리키며, 창조적 전문가는 (기업)관리직·재무(자본가)·법률·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집단을 일컫는다(Florida, 2002a: 114).

4) 인적 자본 대신 Florida는 창조 자본(creative capital)을 강조한다. 전자가 공식적 교육 수준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후자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Boschma & Fritsch, 2009). 시인이나 예술가들처럼 공식적 훈련 없이 고도의 창조성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적 자본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전제로 하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말해주지만, 창조 계층은 고학력자가 아니더라도 창조성을 기반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하여 말해준다(Marlet & van Woerkens, 2004).

사람들에 대한 개방성, 사회적 다양성, 창조적 인재를 매료시키는 힘, 인적 자본에 대한 낮은 진입 장벽, 다양성이 나타났을 때 문화적 갈등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 관용이다. Florida & Gates(2001)는 도시의 다양성 및 관용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게이 지수(gay index), 보헤미안 지수(Bohemian index), 외국 출신 주민 지수(foreign-born index)의 합으로 도출된 종합 다양성 지수(composite diversity index)를 통해 측정하였다. 한편 Florida & Tinagli(2004)는 특정 도시·지역의 관용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는 이질적 사회 집단에 대해 보여주는 수용성 정도로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 창조 도시 및 창조 계층 이론에 대한 국내외 비판

창조 계층 이론이 새로운 시각에서 문화산업 정책과 지역 혁신 정책에 접근한 전략으로서 국제적으로 많은 학자와 실무가의 인정을 받았음(Bieri, 2010; Clifton, 2008; McGranahan & Wojan, 2007; Rutten & Gelissen, 2008; Thomas & Danton, 2006)에도,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서 이를 비판하는 학자들(Asheim, 2009; Glaeser, 2004; Malanga, 2004; Markusen, 2006; Peck, 2005; Pratt, 2008; Rausch & Negrey, 2006; Scott, 2006)이 있어왔다. 이러한 비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 인적 자본과 창조 계층 양자를 구분하고, 전자보다 후자가 지역 임금 수준 등 지역 경제 성장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는 Florida의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들(Marlet & van Woerkens, 2004; Mellander & Florida, 2008)도 있었지만, 창조 계층이 인적 자본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Florida의 이론이 전적으로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는 비판(Glaeser, 2004; Pratt, 2008)이 있었다. 둘째, 창조성과 혁신(innovation)을 구분(De Dreu, Nijstad, Bechtoldt, & Baas, 2011)하면서 후자는 경제 성장을 추동하지만, 전자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Storper & Scott, 2009)이 있었다. 셋째, 창조 계층의 직업, 곧 창조적 직업(creative occupation) 간에도 상당한 차별성이 있으므로 Florida의 범주화는 특히 예술가 집단의 독특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실증적 검증을 거쳐 이루어졌다(Markusen, 2006). 넷째, Florida의 도시의 관용 개념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다는 비판(Krätke, 2010; Wilson & Keil, 2008)이 있었다. 다섯째, Florida의 이론이 도시 간 신자유주의적 경쟁을 심화(Gibson & Klocker, 2005)시키는 동시에, Florida가 말하는 창조 계층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Donegan & Lowe, 2008)이 제기되었다. 여섯째, 인과성(causality)에 대한 비판(Baycan-Levent, 2010: 578; Markusen, 2006; Peck, 2005; Reese & Sands, 2010)이 있었다. 인과

성 비판이란 창조 계층 유인 전략이 도시 경제 발전을 초래했는지, 아니면 그 역의 방향성, 즉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도심 환경이 개선되고 그 후 창조 계층이 들어와 창조적 문화가 발달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를 말하며, 게다가 3T 변수 간 구조적 관계 규명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다.

Florida의 창조 도시 및 창조 계층 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국내에서도 이루어졌다(김경아, 2009; 김동완, 2008; 한상진, 2008). 김경아(2009)는 선진 도시의 창조 도시 특성을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 단선적으로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완(2008)은 창조 계층 이론이 도시 차원에 국한해서만 창조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가나 글로벌 규모, 근린 규모 등 다차원적(multi-scalar)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상진(2008)은 창조 계층 이론이 성장 도시 중심의 이론이고, 신뢰 등 사회 자본⁵⁾에 대해 경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호혜성의 경제를 무시한 시장 경제 논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III. 제도, 문화 그리고 창조 계층의 장소 선택

본 연구자가 평가하기에, Florida의 창조 도시 및 창조 계층 이론은 북미 국가들과 제도와 문화적 요소가 차별화되는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미국과는 다른 다양한 제도적 맥락이 우리나라에 있다. 우선 (창조적인) 사람들이 여러 대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도시의 숫자 면에서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한국보다 미국에서 도시 정부 간 경쟁(intercity competition)이 훨씬 심하다. 게다가 전국 수준에서의 공통 문화 및 언어권의 단일 노동 시장이 있으면서 지역별로 분화된 노동 시장의 기능이 대체로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Asheim, 2009). 이러한 양국의 제도적 환경의 상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의 창조 계층이 Florida 이론의 설명처럼 관용적 분위기의 장소를 선택해왔다고 전제하더라도,⁶⁾ 우리나라 창조 계층의 장소에 대한 선호(locational preference)가 반드시 미국 창조 계층의 장소 선호와 일치한다고 예측할 수 없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의 최첨단 산업을 확보하고 있다. 급진적 혁신을 가져오는 창조 자본과 점진적 개선과 상호적 학습을 유발하는 신뢰 등 사회 자본의 상대적 중요성 역시 양국에서 상이할 수 있는 것이

5) 창조 자본과 사회 자본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의 예로 Chang, Tein & Lee(2010)과 Hoyman & Faricy(2009) 그리고 정동일·성경룡(2010)을 들 수 있다.

6) 사실 엄밀히 말해, 미국의 창조 계층이 관용적인 도시·지역 환경을 거주지로 선택해왔다는 것 자체가 논쟁의 주제다.

다. 이처럼 상이한 제도적 맥락은 창조 계층의 장소 선택을 상이한 형태의 경제적 행동으로 틀어줄 여지가 있다(Hall & Soskice, 2001).

다음으로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도 있다. 사실 Florida가 강조하는 창조성은 개인적 속성을 지니면서도, 더불어 사회문화적 속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정동일·성경룡, 2010; Glăveanu, 2010b; Randel, Jaussi & Wu, 2011⁷⁾. 이는 Florida가 강조한 창조성이 소수 천재들의 예외적이고 특출한 창조성보다는 일상적 삶과 직업 활동에서 발현되는 문제 해결 지향적 창조성(Florida, 2002a)에 가깝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이는 매일의, 삶 전반의 창조성(every-day, lifewide creativity)이며(Craft, 2003: 114), 지역적 창조성(local creativity)인 것이다(Lorenz & Lundvall, 2010: 271). 요컨대 시간적으로는 매일, 공간적으로는 지역적 창조성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의 탄생으로서 창조성의 표현은 하나의 과정이며, 이 과정 속에서 창조의 주체(creator), 창조의 대상(creation), 그리고 청중(audience)의 불가분적·삼위일체적 결합이 특정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다(Glăveanu, 2010a). 즉, 창조성은 문화특수적(culture-specific)이다.

예컨대, 강압적이거나 획일적인 문화권에서 창조성은 상대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또한 다른 한편 개인의 자율과 선택이 심하게 제약 받는 문화 속에서 오히려 대안적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 창조성을 자극할 수도 있다(Craft, 2003). 창조성은 미래지향성(future orientation)이나 개인주의·집단주의 속성과 같은 문화 인자에 의해 더욱 잘 규명될 수 있다(Craft, 2002). 무엇보다 창조 계층의 크기와 구성 면에서 국가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Lorenz & Lundvall, 2010), 이러한 차이는 제도적 특징, 즉 노동 시장, 교육 시스템의 구조에 의할 뿐만 아니라 문화권 간 독특성에 의하여 생성될 수 있다. 이처럼 창조성이 특수 문화적 맥락 속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욱 의미 있게 파악될 수 있다면(Gibson, 2005; Hempel & Sue-Chan, 2010; Kaufman, 2007; Weiming, 2007), 서구적 맥락에서 정의된 창조성을 문화권을 초월하여 보편타당하게 적용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Craft, 2003: 121).

창조성, 창조적 계층의 사회문화적 구성, 문화 의존성으로 인하여 Florida가 관찰한 개인의 창조성과 도시 관용성 간의 상관성·인과성은 미국 지식 경제의 맥락에서 나온 시대적·사회문화적 산물이자 일시적 관측일 수 있으며, 여기에는 미국적 창조 계층의 교육 배경과 학습 과정(Craft, 2003; Zbogar, 2010)이 배후에 크게 작용했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특히 포스트모던 시대에 부합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위한 교육, 탁월한 영재 못지않게 평범한 사람들(ordinary people)의 창조성

7) 창조성이 기반하고 있는 문화적 토대에 대해 Florida의 창조 계층 및 창조 도시 이론이 주창되기 전, 이미 Csikszentmihalyi(1988), Lubart(1999) 등이 강조한 바 있다.

을 신장하기 위한 질적 문화 기술지 접근법이 이미 1990년대부터 논의·실천되고 있었고, Florida 역시 그러한 준거점에서 창조성, 창조 계층, 창조 도시를 정의하고 있다(Lorenz & Lundvall, 2010)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제도와 문화의 두 측면에서 서구와는 차별되는 우리나라 창조 계층의 태도와 행동, 특히 장소 선호 및 선택을 제약하는 독특성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 가지 사례로 우리나라의 창조 도시 비전을 선도하는 대전광역시의 예를 통하여 창조 계층의 특질을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대전발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창조 계층의 종사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식별해볼 때, 전국 7대 광역시 중에서 서울 다음으로 많은 17.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정선거, 2010). 이 연구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창조 계층과 육체노동을 하는 계층 간에는 문화 예술 활동 및 공연에 대한 취향에서 차이를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즉, 문화적 선호에 일정한 차이가 발견되었을 뿐, 유독 창조 계층이 관용적 분위기로 대표되는 인적·문화적 환경을 더 애호한다는 증거는 없었다.

다음으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자녀가 있는 기혼자로 구성된 대전광역시의 창조 계층의 경우, 자녀의 교육을 위한 문화예술 경험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의 창조 계층이 자기 자신의 장소 선호에 있어 자녀의 교육과 문화적 경험의 기회 구조와 제약을 반영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한국의 창조 계층은 도시의 개방성과 관용적 분위기가 충분한 장소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분명 존재하지만, 현실적 장소 선택에 있어 자녀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물적·인적 조건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창조 계층인 부모의 직업 활동과 자녀의 교육은 입지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창조 계층의 자녀 교육에 대한 선호 체계에 따라 거주지 혹은 직업 활동의 장소가 결정되는 다양한 균형상태가 존재하게 된다(김병현, 2011).

Ⅳ. 검증되어야 하는 전제 : 한국 창조 계층의 장소 선호

위에서 언급한 도시정부 간 관계, 노동 시장, 산업 구조 등의 제도적 차이와 창조 계층을 구성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이가 창조 도시 및 창조 계층 이론에 토대를 둔 문화예술정책, 문화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가? 한마디로, 창조 계층이 도시의 관용적 분위기가 고

조된 장소에 매료되어 그러한 장소를 선택하여 거주하게 된다(Florida, 2002a, 2002b, 2005, 2007)는 주장이 더욱 면밀하게 검토될 것을 요청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질성·다양성에 대한 개방성을 의미하는 관용적 분위기—이는 명백히 장소의 속성이며, 도시의 문화 예술 정책에 의해 일정 부분 변화할 수 있다—가 창조적 개인을 흡입하는 매력 요인이 된다는 지점은 Florida의 창조 계층 및 창조 도시 이론에서 아주 핵심적인 전제이자 주장이다.⁸⁾ 그리고 창조적 개인의 창조적 직업 활동과 창조적 상호작용의 결과 그 장소의 혁신적 기업 활동, 문화산업의 육성, 경제 발전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의가 펼쳐지기 위해 이 전제의 타당한 검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에서 이러한 전제의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창조 도시 이론이 서구의 혁신적 도시들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이론의 이식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는 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창조 도시이론을 여과 없이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적절한 견제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다(김혜민, 2011: 33). 이와 같이 대응이 쉽지 않은 현실은 최근 창조 도시와 문화 도시 등 서구와 일본 등에서 유입된 다양한 도시 담론이 한국에서 재형성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처해 있는 제도적·문화적·시간적·공간적 특수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부족한 데에서 기인한다(강동진, 2010).

물론, 아직까지 Florida의 창조 도시 이론에 입각한 도시 정책의 실험은 미흡한 편이었다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창조 도시라는 말은 ‘외국 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고민해서 겨우 만들어낸 말인데, 우리는 알게 된 지 겨우 몇 년 만에 싫증부터 내고 있다(강동진, 2010: 16)’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전국의 많은 도시가 대체로 획일적인 문화 도시, 창조 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적용해보지 못하였음에도 발생하는 문제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시들은 창조 도시 이론과 전략을 무시하거나 폐기할 만한 입장은 아니며, 한국 도시들, 나아가 도시 각각에 적합한 고유한 이론과 전략을 개발하면서 이른바 창조 계층을 유인하는 선결 조건을 충족하는 창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이외에도 도시의 재생(regeneration)이나 재활성화(revitalization) 프로젝트에 국한해볼 때, 국내의 대상 도시의 상당수가 서구의 많은 사회적 실험 사례와 달리 쇠퇴 주거 지역이라는 점에서 소위 주민들에 대한 창조적 포섭(creative inclusion)을 긍정하는 내생적 발전 전략이 도모되어야 한다(김혜민, 2011).

창조 도시 전략을 진지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다음 질문을 피해 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창조적 개인들은 관용적 장소, 개방적 인적 환경을 선호하는가?” 이 질문은

8) Florida(2002a, 2002b, 2005, 2007)는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도시 분위기는 구성원들이 자기표현(self-expression)을 통해 창조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특정 장소에 머무른다 하더라도 정주 후 창조성·지식을 그 도시·지역을 위해 공유할 수 있겠는가 문제(Hung, Durcikova, Lai, & Lin, 2011)가 있다. 이는 분명 또 다른 중요 이슈이며, 창조 계층이 관용적 도시 분위기에 이끌릴 것인가의 문제만큼 중요성을 가질 수도 있다.

본 탐색적·비판적 연구를 가능하게 한 핵심 질문이며,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정적이라면 우리는 한국의 창조 도시를 위한 창조 계층 유인 전략을 다른 방식으로, 더욱 적절하고 타당하게 구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참고할 수 있겠다.

도시의 관용성과 창조 계층의 장소 선택 간 관계는 환경심리학(environmental psychology) 혹은 생태심리학(ecological psychology)의 틀에서 볼 때 인간의 행동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환경과 인간 심리 간 상호작용의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장소에 대한 선호(environmental preferences)는 분명 인지적 차원의 의사결정이나 선택을 동반하게 마련이며, 이러한 선택은 특정 환경·장소가 제공하는 한 가지 속성—예컨대 관용—뿐만 아니라 그 장소와 그 대안적 장소가 제공하는 다차원적 속성에 대한 비교평가의 결과 생겨나는 것이다(Kaplan, 1983). 이런 점에서, 창조적 개인들이 무차별적·무조건적으로 관용적·개방적 도시 분위기·환경에 이끌려 주거·직장의 장소 선택을 한다는 주장은 우선 특정 환경(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속성(various environmental properties)과 그 위계적 질서(Stokols, 1981)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장소와 인간 심리 관계의 역동성을 연구하는 일단의 학자들에 따르면(대표적으로 Stokols, 1981), ‘특정 장소가 특정 (인간 개개인 혹은 집단의) 활동과 그 활동의 목표들을 선호하는 정도’가 있는데, 이를 장소·환경의 적합성(environmental congruence), 혹은 집단과 환경간 적합성(group-environment congruence)이라고 불렀다. 장소의 속성은 사람들에게 한편으로 장소·환경적 기회(environmental opportunity)를 촉진할 수 있으나(적합성이 높은 경우), 다른 한편으로 그 기회를 저해할 수도 있다(적합성이 낮은 경우). 이처럼 인간이 특정 속성을 지닌 장소를 선호할 수 있는 것처럼, 장소가 특정 속성을 지닌 인간을 선호할 수 있다.

비록 Florida의 이론이 창조적 개인이 관용적 장소를 선호할 것이라는 주장을 문화 보편적으로 확장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의 창조 계층 이론에서 공언하는, 관용적 장소가 창조적 개인들을 유인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국적 맥락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V. 나오는 말

Milligan(2003: 24)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관용과 다양성이 창조적 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What do tolerance and diversity look like to creative people?)” 본

논문의 문제의식 역시 이와 흡사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창조적 개인들, 곧 창조 계층의 장소 선호 체계와 장소 선택이 어떠한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들이 도시의 관용적 분위기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지 시론(試論)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설령 미국 등 북미 지역에서는 타당하게 검증된 가정이라 하더라도(사실은 이와 다르며, 논쟁 중이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창조적 계층이 마찬가지로의 장소 선호를 가질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경직된 가정을 본 연구는 비판하였다. 그러한 전제를 검증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그러한 전제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사례와 근거를 일부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한국 도시의 문화 정책의 맥락에서 창조 계층이 Richard Florida의 주장처럼 도시의 관용적 분위기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지에 관해 비판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이 점에서 한국에서 창조적인 사람들을 특정 장소로 유입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실행하는 도시 차원의 문화 정책 방향과 기조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관용과 다양성의 장소를 조성하는 소위 창조 도시 전략의 타당성이 한국의 도시 문화 정책을 위해 향후 더욱 엄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창조 계층을 유인하는 창조 도시 전략을 폐기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창조 계층을 매료시키기 위한 다른 방식과 전략에 대한 개방성과 유연성을 공유하자는 주장에 가깝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서구, 특히 유럽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서구 창조 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심도 있는 대표적 사례 연구인 Evans, Foord, Gestler, Tesolin, & Weinstock(2006)에 따르면, 서구의 경험은 Florida의 논제가 강조하는 것 이상의 하드웨어와 제도적 기반에 대한 투자와 안정적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이것은 관용적·인적 환경과 더불어 창조 계층을 유인하는 가시적 환경 조건의 중요성을 시사해준다. 다음으로, 창조 계층을 포함한 인적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통계 자료를 구축하고 창조 도시 사업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한국 도시들에서 창조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장소적 선호 체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초 연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창조 도시의 비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앙정부도 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도 한국 창조 계층의 선호 체계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한 바 없다. 광역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여타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서로 경쟁적으로 창조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박은실, 2008; 임상오, 2008), 어떻게 하면 창조 계층을 유입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깊지 않았다.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 2008년부터 과학기술 브랜드를 기반으로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새로운 도시 비전으로서 창조 도시 대전을 표방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광역시

는 창조 도시를 미래의 도시 전략으로 설정한 바 있다. 창조성을 바탕으로 삶을 영위하는 성향이 강한 창조 계층은 다양하고 참신한 문화적 자극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도시의 인적·문화적 환경 조성을 대전시정의 가장 중요한 정책 영역 중 하나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정선기, 2010)된 바 있다. 그렇지만 창조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연구는 대전에서조차 기초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창조 도시를 만들기 위해 창조 도시에 대해 잘 알아야 하지만, 매우 분명한 것은 창조적인 사람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창조적인 사람들, 창조 계층의 선호에 대한 연구의 부재는 창조 도시의 개념이 더욱 광범위한 문화 도시 전략의 하나로 추진되기도 하는 도시에 서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2004년부터 문화 중심 도시를 표방하던 광주광역시도 2010년 10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과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와 같은 고민은 아직 부족하다. 나아가 문화산업과 첨단산업의 발전을 통한 도시 재생(urban regeneration)을 위해 도시의 창조성을 관리·향상시키려는 흐름(김영인·여홍구, 2009)도 마찬가지다.

본 연구는 한국 창조 계층의 장소 선호에 있어 Florida의 창조 도시 이론의 설명처럼 장소의 관용적 속성에 이끌린다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이 점에서 창조적인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관용과 문화적 다양성의 조건 형성—설령 이것이 도시 문화 정책 수단을 통하여 충분히 실현가능한 정책목표라고 할지라도—을 주된 채널로 하는 창조 도시 전략은 실효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재고할 필요가 있고, 많은 나라와 도시들의 심층적 사례 연구 결과물이 제공하는 교훈에 주목하고, 한국적 제도와 문화를 고려하면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

창조 도시 전략의 중요한 전제이자 목표인 창조 계층의 이동 및 정주와 관련하여 Florida의 이론은 인간 행동의 기본 가정에 관한 미시적 기초가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Storper & Scott, 2009)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적어도 한국의 도시 문화 정책 맥락에서 이를 적용하려면 타당한 검증이 요청된다는 점을 논증·주장한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사실 Florida 방식의 창조 계층 유인 전략(attraction strategy)의 실증적 검증 결과 실제 효과가 미약하다는 선행 연구(대표적으로 Houston, Findlay, Harrison, & Mason, 2008)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실증 연구 결과, 창조 계층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통적 경제적 환경 및 기업 환경의 조성, 마케팅, 물적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전략을 병행하여야 하며(Sands & Reese, 2008), 따라서 단지 창조 계층의 이주는 지역

9) 관용과 다양성의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단지 창조 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도시 문화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경제 성장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Reese & Sands, 2008; Scott, 2006) 선행 연구와도 일정 부분 핵심적 주장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아직 대전광역시에서만 조사되었지만, 기성세대인 창조 계층을 뒤따르는 후속 세대의 교육에 대한 배려는 첫째 창조 계층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둘째 후속 세대의 교육을 통한 창의성 계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Evans, et al., 2006).

창조성과 관용 간 대립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특정 조건이 있을 수도 있다. 설령 창조 계층의 이동과 정주와 관련하여 관용적 장소의 매력이 창조적인 사람들을 그 장소로 유입시켰다고 하더라도, 중국에는 창조적 전문가 집단 등 창조 계층 유입과 정주의 여파로 도시 재생의 과정에서 특히 빈자들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대상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호주(Gibson & Klocker, 2005), 독일(Krätke, 2010), 그리고 심지어 창조 도시 이론의 주요 사례를 제공해온 미국 텍사스 오스틴(Long, 2009)에서 보고되기도 하였다. 다양한 소수자 집단의 배제가 오히려 창조 계층의 유입으로 가속화된다는 비판은 창조 계층 유인 전략이 포용적이지 않고 오히려 지나친 상업화와 사회적 격리를 유발한다는 사례 연구들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요컨대 이러한 사례들을 연구하고,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창조적 포섭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조건들을 탐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Florida의 창조 도시 이론의 문화 정책 메시지(cultural policy message)가 한국에서 적실성을 가지기에 많은 제한점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역사적 견지에서 바라볼 때, 창조성의 클러스터, 창조 도시가 대체 어디까지 정작 새로운 것인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들은 언제나 창조성과 혁신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Hall, 1998). 세계 문화의 중심 도시들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풍성한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장소들이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아(2009), 창조산업 기업혁신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 정부지원을 중심으로, 『한국 거버넌스학회보』, 16(3), 187-208.
- 강동진(2010), 강동권 개발, 창조 도시로 간다, 『부산발전포럼』, 121, 14-20.
- 김기곤(2011), 문화-창조-인권도시의 관계와 정책방향, 『광주연구』, 2001년 1호, 94-113.
- 김동완(2008), 규모의 지리 측면에서 바라본 창조적 계급과 도시 창조성: 도시 창조성의 재구성과 도시 정책적 시사점, 『공간과 사회』, 148-175.
- 김병현(2011), 교육수요와 거주지선택에 대한 이론적 분석, 『국제지역연구』, 15(1), 571-583.
- 김선미(2010), 문화 도시 대전을 꿈꾸며, 『대전문화』, 19, 대전광역시.
- 김영인·여홍구(2009), 도시재생전략 수립을 위한 도시의 창조성 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4(2), 71-84.
- 김현민·김유미(2009), 도시의 창조적 산업과 인력이 고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 정책학회보』, 18(4), 321-443.
- 김혜민(2011),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창조적 도시재생정책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 정책연구』, 1(2), 25-54.
- 박은실(2008), 국내 창조 도시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국토』, 통권 322호, 45-55.
- 이무용(2010), 행복창조 도시를 위한 광주 문화 정책의 전략과 과제, 『광주연구』, 2010년 4호, 1-17.
- 이병훈(2008), 한국의 문화 도시 전략과 활동, 구마모토 아시아 국제건축포럼 발표논문, 2008년 11월 21일.
- 이영범(2005), 도시담론으로서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전략을 통한 도시재생, 『문화 정책논총』, 17,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임상오(2008), 창조 도시 진흥을 위한 창조산업 활성화 전략, 『국토』, 통권 322호, 16-23.
- 임형섭(2010), 창조산업의 경제적 고찰과 광주 창조산업 육성, 『광주연구』, 2010 봄호, 1-17.
- 정선기(2010), 창조집단 유인을 위한 대전의 문화 정책, 『대전발전포럼』, 2010 기획특집, 8-27.
- 정동일·성경룡(2010), 창조적 지역발전과 그룹지니어스: 신활력사업 대상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4(1), 60-97.
- 한상진(2008), 사회적 경제 모델에 의거한 창조 도시 담론의 비판적 검토: 플로리다, 사사키, 랜드리

논의를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12(2), 185–206.

Acs, Z. J. and Megyesi, M. I.(2009), Creativity and Industrial Cites: A Case Study of Baltimore.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21(4), 421–439.

Asheim, B.(2009), Guest Editorial: Introduction to the Creative Class in European City Regions.

Economic Geography, 85(4): 355–362.

Bieri, D. S.(2010), Booming Bohemia? Evidence from the US High–Technology Industry, *Industry*

& Innovation, 17(1), 23–48.

Binnie, J. and Skeggs, B.(2004), Cosmopolitan Knowledge and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Sexualized Space: Manchester's Gay Village, *Sociological Review*, 52(1), 39–61.

Borjas, J. (1994), The Economics of Immigrat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2(4), 1667–1717.

Boschama, R. A. and Fritsch, M.(2009), Creative Class and Regional Growth: Empirical Evidence from

Seven European Countries. *Economic Geography*, 85(4), 391–423.

Chang, S., Tein, S. and Lee, H.(2010), Social Capital, Creativity, and New Product Advantage: An

Empiric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Business Management*, 8(1), 43–55.

Clifton, N.(2008), The “Creative Class” in the UK: An Initial Anaysis,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90(1), 63–82.

Craft, A.(2002), *Creativity in the Early Years: A Lifewide Foundation*, London: Continuum.

_____(2003), The Limit to Creativity in Education: Dilemmas for the Educator,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1(2), 113–127.

Csikszentmihalyi, M. (1988), Society, Culture, and Person: A Systems View of Creativity, In R.

Stenberg(ed.), *The Nature of Creativity: Contemporary Psychological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esrochers, P.(2001),Local Diversity, Human Creativit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Growth &*

Change, 32(3), 369–394.

Donegan, M. and Lowe, N.(2008), Inequality in the Creative City: Is There Still a Place for “Old–Fashioned”

Institutions?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22(1), 46–62.

Florida, R. (2002a),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New York: Basic Books.

_____(2002b), Bohemia and Economic Geograph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2, 55–71.

_____(2003),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City & Community*. 2(1), 3–19.

_____(2005),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New York/London: Routledge.

- _____(2007), *The Flight of the Creative Class*, New York: Collins.
- Florida, R. and Gates, G.(2001), *Technology and Tolerance: The Importance of Diversity to High-Technology Growth*,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 Florida, R. Mellander, C. and Stolarick, K.(2008), Inside the Black of Regional Development: Human Capital, the Creative Class and Tolerance,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8, 615–649.
- Gibson, C., and Klocker, N.(2005), The ‘Cultural Turn’ in Australia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Discourse: Neoliberalising Creativity? *Geographical Research*, 43(1), 93–102.
- Gibson, H.(2005), What Creativity Isn’t: The Presumptions of Instrumental and Individual Justifications for Creativity in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3(2), 148–167.
- Giuliani, M. V.(1991), Toward an Analysis of Ment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to the Home,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8(2), 133–146.
- Glaeser, E.(2004), Review of Richard Florida’s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5, 593–96.
- Glăveanu, V. P.(2010a), Paradigms in the Study of Creativity: Introducing the Perspective of Cultural Psychology, *New Ideas in Psychology*, 28(1), 79–93.
- _____(2010b), Creativity as Cultural Participation,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 41(1), 48–67.
- Hall, P.(1998), *Cities in Civilization*, London: Weidenfield and Nicolson.
- Hall, P. and Soskice, D., eds.(2001), *Varieties of Capitalism: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Hempel, P. S. and Sue–Chan, C.(2010), Culture and Assessment of Creativity,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6(3), 415–435.
- Houston, D., Findlay, A., Harrison, R. and Mason, C.(2008), Will Attracting the “Creative Class” Boost Economic Growth in Old Industrial Regions? A Case Study of Scotland,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90(2), 133–149.
- Hoyman, M. and Faricy, C.(2009), It Takes a Village: A Test of the Creative Class. Social Capital and Human Capital Theories, *Urban Affairs Review*, 44(3), 311–333.
- Hung, S., Durcikova, A., Lai, H., and Lin, W.(2011), The Influence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on Individuals’ Knowledge Sharing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69, 415–427.

Jacobs, J.(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Random House.

_____(1969), *The Economy of Cities*, New York: Vintage Books.

_____(1984), *Cities and Wealth of Nations*, New York: Random House.

Kaplan, S.(1983), A Model of Person–Environment Compatibility, *Environment and Behavior*, 15, 311–332.

Kaufman, G. D.(2007), A Christian View of Creativity: Creativity as God, *Dao*, 6, 105–113.

Krätke, S.(2010), ‘Creative Cities’ and the Rise of the Dealer Class: A Critique of Richard Florida’s Approach to Urban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4(4), 835–853.

Lin, S. and Song, S.(2002), Urban Economic Growth in China: Theory and Evidence, *Urban Studies*, 39(12), 2251–2266.

Long, J.(2009), Sustaining Creativity in the Creative Archetype: The Case of Austin, Texas, *Cities*, 26, 210–219.

Lopes, M. P., Da Palma, P. J., and e Cunha, M. P.(2011), Tolerance in Not Enough: The Moderating Role of Optimism on Perceptions of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 *Social Indicator Research*, 102, 333–350.

Lorenz, E. and Lundvall, B.(2010), Accounting for Creativity in the European Union: A Multi–level Analysis of Individual Competence, Labour Market Structure, and System of Education and Training,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5, 269–294.

Lubart, T.(1999), Creativity Across Cultures, In R. Sternberg(ed.), *The Nature of Creativity: Contemporary Psychological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langa, S.(2004), The Curse of the Creative Class, *City Journal*, Winter, 36–45.

Markusen, A.(2006), Urban Development and the Politics of a Creative Class: Evidence from a Study of Artists, *Environment and Planning A*, 38, 1921–1940.

48 Marlet, G. and Woerkens, C.(2007), The Dutch Creative Class and How it Urban Employment Growth, *Urban Studies*, 44(13), 2605–2626.

McCann, E. J.(2007), Inequality and Politics in the Creative City–Region: Questions of Livability and State Strateg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1(1), 188–196.

- McGranahan, D. and Wojan, T.(2007), Recasting the Creative Class to Examine Growth Processes in Rural and Urban Counties, *Regional Studies*, 41(2), 197–216.
- Mellander, C. and Florida, R.(2008), Creativity, Talent, and Regional Wages in Sweden,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46(3), 637–660.
- Milligan, M. J.(2003), The Individual and City Life: A Commentary on Richard Florida's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City & Community*, 2(1), 21–26.
- Norlander, T., Erixon, A., & Archer, T.(2000), Psychological Androgyny and Creativity: Dynamics of Gender—role and Personality Trait,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28(5), 423–436.
- Peck, J.(2004), Struggling with the Creative Clas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9(4), 740–770.
- Pratt, A. C.(2008), Creative Cities: The Cultural Industries and the Creative Class,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90(2), 107–117.
- Randel, A. E., Jaussi, K. S., and Wu, A.(2011), When Does Being Creative Lead to Being Rated As Creative? The Moderating Role of Perceived Probability of Successfully Bringing Ideas to a Supervisor's Attention, *Creativity Research Journal*, 23(1), 1–8.
- Rausch, S. and Negrey, C.(2006), Does the Creative Engine Run? A Consideration of the Effect of Creative Class on Economic Strength and Growth, *Journal of Urban Affairs*, 28(5), 473–489.
- Reese, L. and Sands, G.(2008), Creative Class and Economic Prosperity: Old Nostrums, Better Packaging?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22(1), 3–7.
- Rutten, R. and Gelissen, J.(2008), Technology, Talent, Diversity and the Wealth of European Regions. *European Planning Studies*, 16(7), 985–1006.
- Sands, G. and Reese, L.(2008), Cultivating the Creative Class: And What About Nanaimo?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22(1), 8–23.
- Scott, A.(2006), Creative Cities: Conceptual Issues and Policy Questions, *Journal of Urban Affairs*, 28(1), 1–17.
- Steven, K. and Lyons, T.(2003),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for State and Local Practice*,

- Washington D.C.: The international City/County Management Association.
- Stokols, D.(1981), Group \times Place Transactions: Some Neglected Issues in Psychological Research on Settings, In D. Magnusson(ed.), *Toward a Psychology of Situations: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393–41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Stokols, D. and Shumaker, S.(1981), People in Place: A Transactional View of Settings, In J. Harvey(ed.), *Cognition, Social Behavior, and the Environment*, 448–48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Stolarick, K and Florida, R.(2006), Creativity, Connections and Innovation: A Study of Linkages in the Montréal Reg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38(10),1799–1817.
- Storper, M. and Scott, A. J.(2009), Rethinking Human Capital, Creativity and Urban Growth,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9, 147–167.
- Thomas, J. M. and Danton, J.(2006), Social Diversit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Metropolis,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21(2), 154–168.
- Torrance, E. P.(1988), The Nature of Creativity as Manifest in Its Testing, In R. Sternberg(ed.), *The Nature of Creativity: Contemporary Psychological Perspectives*, 43–7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iming, T.(2007), Creativity: A Confucian View, *Dao*, 6, 115–124.
- Wilson, D. and Keil, R.(2008), Commentary: The Real Creative Class. *Social & Cultural Geography*, 9(8), 842–847.
- Zbogar, A.(2010), Cultural Identity and Postmodern Society in Literary Pedagogy, *Slavisticna Revija*, 58(3), 349–360.

[Abstract]

Critical Review of a Creative City Thesis for Korean Urban Cultural Policy: A Focus on the Locational Preference of the Korean Creative Class

Jun-Hong Kim

Ph.D.

Sungkyunkwan University

Strategies to attract the migration to urban spaces of the creative class have been argued by Richard Florida to be a key driver of higher urban economic performance. He has emphasized how creative people are attracted to cities or regions with vibrant neighborhoods whose characters are often defined as culturally diverse and tolerant. The present study employs a critical analysis of Florida's thesis to examine the importance of the quality of the place and the urban climate of tolerance in attracting members of the creative class in Korea. The present review mainly does not support Florida's much cited creative class thesis and talent attraction strategy in the context of Korean cultural policy.

[Key words : Creative City, Creative Class, Creativity, Tolerance, Locational Preference, Cultural Policy]